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이 문 선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에 미치는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내현적 자기애 척도,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하위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우울 경험 질문지의 자기비난 하위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 소재 남녀 대학생에게 배부하여 총 450명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 자기비난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부분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치심, 자기비난

* 본 연구는 이문선(2013)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현대사회는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 되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중요성이 부가되고 있다. 최종순(2003)은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독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징들이 자기애적 성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고, 김은혜(2012)는 자기애(narcissism)가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점차 몰 개인화되는 시대 속에서 자기 가치감과 존재의 안정감을 갖고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삶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남운(2001)은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애는 자기개념이 취약하고 실제 자기상과 이상적 자기상이 불일치하여 분노, 우울,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높아져서 신체적, 심리적 질환에 취약하며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기애는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다(Hendin & Cheek, 1997; Kohut, 1977; Rathvon & Holn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DSM-IV에서 말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를 주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해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Cooper(2000)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취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현상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자는 자존감이 매우 높아서 자신의 웅대성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

의 찬사를 요구하고,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자존감에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피함으로써 비난받을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2; Cooper, 2000).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병리적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다(Hibbard, 1992;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강박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박동숙, 2004; Freud, 1957; Sorotzkin, 1985)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은혜(2012)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고, 이원희와 안창일(2005)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즉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자신에게 부과된 통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승인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승인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중요한 타인이 완벽주의적 기대의 주체이고 자신이 기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노력하지만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고 기저에서 수치심을 뿌리 깊게 느낀다는 점과, 성취나 결과를 통해 타인의 인정과 승인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깊은 관련을 보인다(김은혜, 2012; 김현정, 손정락, 2007; Burns, 1980;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Hewit & Flett, 2002; Pacht, 1984).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동기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편으로 타인의 평가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가져올 수 있다.

한혜림(2004)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는 수치심 경향성,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내현적 자기에는 수치심 경향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일수록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수치심 경향성은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더 크게 갖게 될 수 있다. 수치심은 자신의 총체적인 자기(self)를 부적절하고 부족한 존재로 표상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정서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다(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이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억제적이며, 수줍어하고,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깊은 관련을 보이는 특성이다. Wurmser(1981)는 수치심은 실제 자기(actual self)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간의 불일치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자기에에 대한 기대인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에에 대한 지각간의 자기에적 갈등이 수치심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을 살펴보면 실제 자기(real self)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 분노,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이러한 추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Hollender(1965)는 완벽주의가 자아 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실패는 수치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완벽주의자 모두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에 의해서 수치심이 유발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증상들(예: 심장이 두근거림, 막연한 두려움, 사회적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움 등)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혹은 자신이 의도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취약한 사고를 경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서 자기비난이 높

아지게 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윤성민, 신희천, 2007). 자기비난은 자신에 대한 가혹하고 처벌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감,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실패감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김정미, 2009, Santor & Yazbek 2006).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자의 타인에 대한 평가의 민감성과 취약성은 자기비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Dunkley, Blankstein, Masheb와 Grilo(2006)은 자기비난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비난을 내재적 자기비난(internalized self-criticism)과 비교를 통한 자기비난(comparative self-criticism)으로 나누어서 완벽주의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두 종류의 자기비난 모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rah & Sian, 2009; Thompson & Zuroff, 2004). Power 등(2004)은 실수에 대한 염려와 행위에 대한 의심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비난과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기비난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진다고 하였다(남기숙, 2009). 완벽주의자들은 높은 기준의 추구,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 성취나 결과를 통한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등을 특징으로 갖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기비난을 하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수줍어하며,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한다(권희영, 홍혜영, 2010). 이로 인해 감정에 쉽게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곽진영, 하은혜, 2010). 이처럼 많은 선행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의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항순, 2012; 한혜림, 2004; Kohut, 1977; McWilliams, 1994; Morrison, 1989). 이러한 수치심은 성격적 자기비난 및 행동적 자기비난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권희영, 홍혜영, 2010; Lutwak, Panish, & Ferrari, 2002; Lutwak et al, 2007), 자기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chel & Deborah, 2010). Barrow(2007)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섭식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높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비난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내담자가 수치심으로 인해 섭식장애로 까지 이어지는 선행연구(박지연 외, 2011)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할 때 자신의 전체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인지적으로 자기 전체에 대한 자기비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수치심이 자기비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비난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쉽게 감정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정서적 측면인 수치심이 선행되고, 이후에 인지적 측면인 자기비난이 일어나며 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최근에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완벽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에서 정서적인 변인으로 수치심과 인지적 변인으로 자기비난이 매개 역할을 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 원인을 외부 귀인이 아니라 내부 귀인을 하게 되면서 자기비난을 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치심, 자기비난 경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이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수치심이 자기비난을 이중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 성향의 발현시기가 초기 성인기에 시작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의 1개의 대학교에서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는 자기보고 형태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483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50명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문에 참여자는 총 참여자는 450명 중 남자 160명(35.6%), 여자 290명(64.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23($SD=3.04$)였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 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

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성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과 Flett(1991)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하위 3가지 차원 중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5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7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7)'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10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ewitt와 Flett(1991)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86,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8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87이었다. 이 척도를 재타당화 한 한기연의 연구(1993)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84,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7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7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Cook(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 척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1)'와 '거의 항상 경험한다(5)'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6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총합으로 측정된다.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적절감(10문항)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을 측정하고, 공허(5문항) 영역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을 측정한다. 자기차별(5문항)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며,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을 측정한다. 실수불안(4문항)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결점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Cook(198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로 나타났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자기비난 척도

자기비난을 측정하기 위해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하고, 조재임(199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사용하였다. DEQ는 의존성 22문항, 자기비난 22문항, 효능감 22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자기비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자기비난 척도는 죄책감, 내적 공허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관계 악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서 오는 불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한다.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7)’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2점에서 15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재임(1997)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과 매개효과 검증과 모형 평가를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둘째,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각 영역별로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Bandalos와 Finney(2001)의 제안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자기비난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두 개의 변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조현철, 강석후, 2007). 이를 위해 우선 변인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에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였다. 다섯째,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인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위의 지수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의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을 포함하여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것으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써,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450$)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모형검증을 위한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측정변인 간 상관 (N=450)

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1 내현적 자기억절제																			
1-1 목표불안정	685**	1																	
1-2 안정속구/거대자기 환상	667**	308**	1																
1-3 학취(자기중상성)	677**	377**	546**	1															
1-4 과민 취약성	846**	407**	634**	579**	1														
1-5 초상 자진관 무족	666**	467**	339**	395**	613**	1													
2 수리성	649**	381**	415**	386**	721**	313**	1												
2-1 무리정감	595**	391**	344**	357**	663**	504**	883**	1											
2-2 공허감	555**	343**	329**	366**	598**	420**	887**	698**	1										
2-3 자기거멸	548**	377**	373**	361**	650**	417**	906**	752**	762**	1									
2-4 심수통안	544**	388**	423**	346**	608**	438**	731**	566**	409**	384**	1								
3 자기비난	618**	398**	445**	375**	659**	505**	796**	730**	711**	694**	589**	1							
3-1 자기비난1	587**	390**	388**	372**	654**	408**	777**	695**	756**	667**	545**	910**	1						
3-2 자기비난2	538**	361**	329**	296**	553**	435**	706**	671**	616**	620**	508**	883**	734**	1					
3-3 자기비난3	560**	331**	408**	378**	588**	430**	686**	616**	587**	601**	559**	894**	748**	687**	1				
4 사회적으로 무책임																			
4 황폐주의	357**	225**	373**	264**	410**	218**	490**	377**	362**	420**	310**	432**	378**	316**	439**	1			
4-1 황폐주의1	251**	160**	418**	233**	328**	140**	309**	340**	369**	291**	256**	377**	306**	295**	413**	740**	1		
4-2 황폐주의2	453**	366**	351**	396**	509**	367**	563**	511**	503**	522**	373**	553**	513**	464**	498**	730**	565**	1	
4-3 황폐주의3	370**	273**	370**	358**	493**	285**	405**	428**	387**	428**	304**	483**	441**	362**	469**	762**	616**	745**	1
평균	294	288	329	234	292	295	267	239	259	248	337	400	392	390	414	390	439	368	384
표준편차	90	88	65	79	77	71	72	74	98	82	73	81	92	91	83	70	95	96	94
왜도	0.83	1.77	-1.61	0.76	2.65	3.21	6.08	6.57	3.94	7.56	0.57	4.96	2.92	6.11	2.25	4.69	3.77	9.29	8.98
첨도	-2.15	-0.60	0.94	-3.80	0.63	1.84	1.52	-3.97	2.76	-4.03	0.24	-0.11	-0.42	-0.56	0.06	-0.13	1.74	1.39	1.39

** p < .01, *** p < .001

도,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의 경우 .93으로 절대 값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경우 절대 값이 1.74으로 절대 값 7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r=.36, p<.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수치심($r=.65,$

$p<.01$)과 자기비난($r=.62,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수치심은 자기비난과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r=.80,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뿐만 아니라 수치심($r=.43, p<.01$), 자기비난($r=.43,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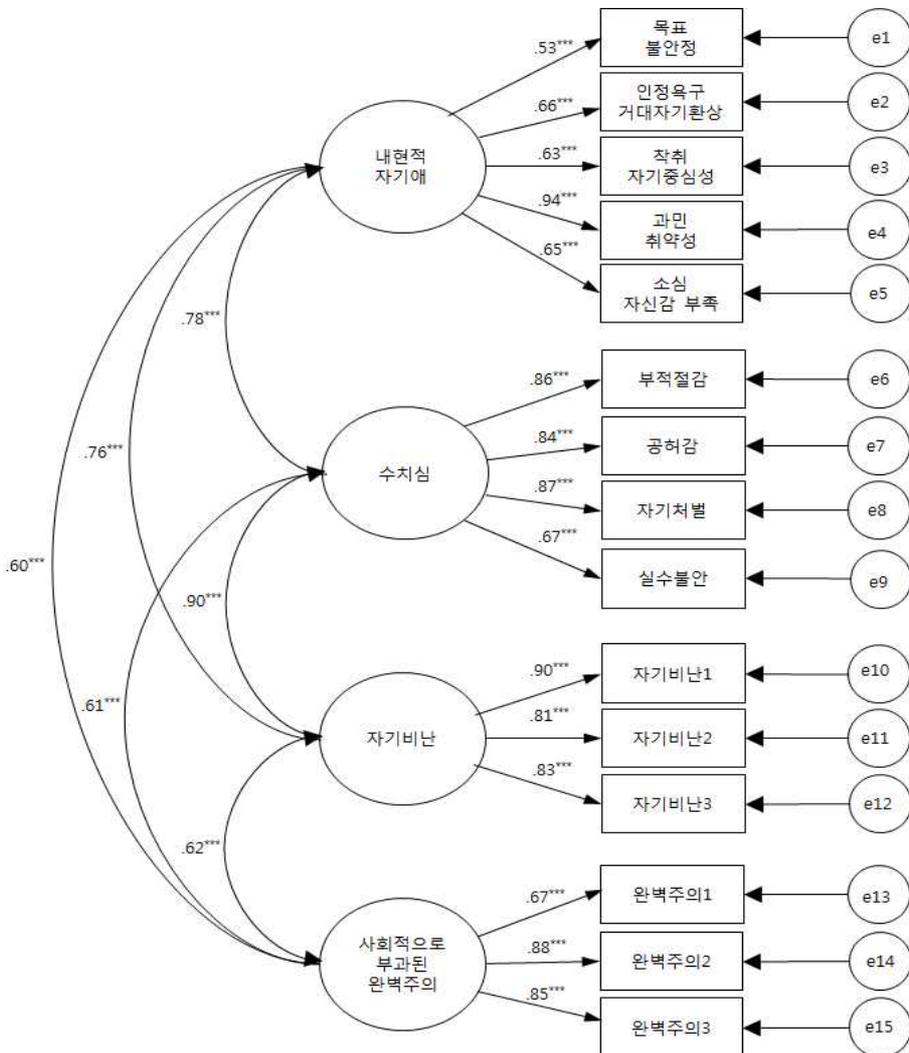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06, CFI=.925, RMSEA=.094로 나타났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는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3에서 .94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이 $\alpha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밝히기 위해서 단일모형 평가와 경쟁모형 평가의 두 가지 방법 중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장되는 경쟁모형 평가(Kline, 2005)를 채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므로(김은혜, 2012; 김현정, 손정락, 2007; Burns, 1980; Frost et al, 1993; Hewit & Flett, 2002; Pacht, 1984),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95%신뢰구간)
연구모형	418.325	85	4.921	.925	.907	.093 (.085~.102)
경쟁모형	441.457	87	5.074	.920	.903	.095 (.087~.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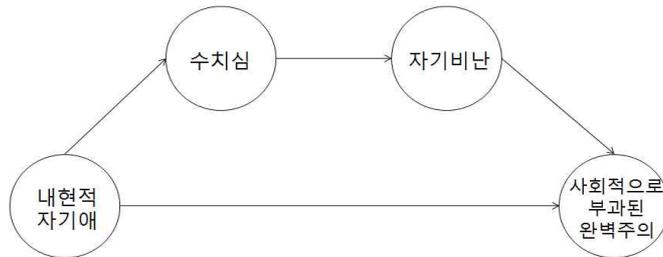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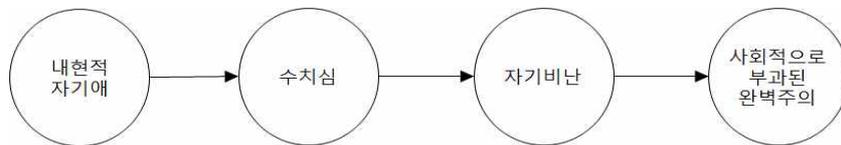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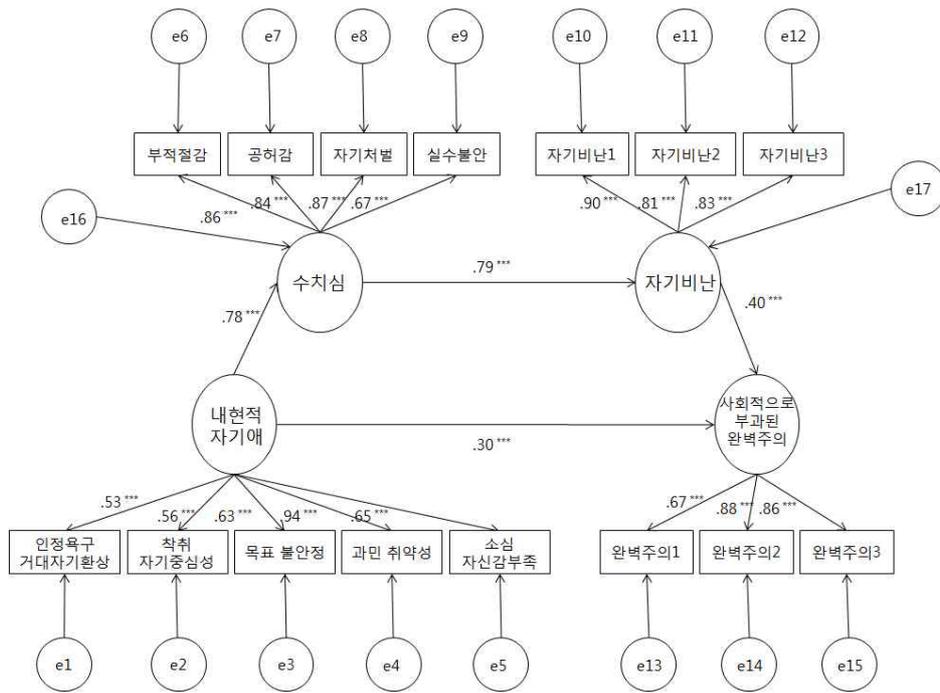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자기애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동시에 수치심이 자기비난을 이중매개 하는 경로를 포함한 매개모형을 연구모형(그림 2)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Lutwak, Panish 및 ferrari(2002)과 Lutwak 등(2007)은 수치심이 성격적 자기비난과 행동

적 자기비난과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이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완전매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직접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그림 3)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경로		β	B	표준오차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1.06***	.783	.082
수치심	→ 자기비난	1.04***	.790	.082
자기비난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08***	.399	.060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408***	.298	.106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 연구모형 검증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χ^2 차이 값은 23.132로 나타났다. 자유도의 차이가 값이 1일 때,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두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위한 차이 값인 3.84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은 경쟁모형보다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경쟁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χ^2 값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의

값은 CFI=.925, TLI=.907으로 CFI와 TLI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RMSEA도 .093으로 보통의 적합도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그림 4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선택 모형인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모형에서 설정한 4개의 경로계수 가운데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자기비난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치심에서 자기비난으로 가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전체 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783 (.710-.832)	.783 (.710-.832)	-
내현적 자기애	→	자기비난	.618 (.520-.733)	-	.618 (.520-.733)
내현적 자기애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98 (.125-.483)	.298 (.125-.483)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자기비난	.302 (.181-.451)		.302 (.181-.451)
수치심	→	자기비난	.790 (.654-.918)	.790 (.654-.918)	-
수치심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15 (.169-.472)	-	.315 (.169-.472)
자기비난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99 (.169-.472)	.399 (.169-.472)	-

최종 선택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450$)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을 거쳐 자기비난으로 가는 경로(.520-.733),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거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181-.451), 수치심에서 자기비난을 거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169-.472)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비난과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이중매개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요인인 수치심과 인지적 취약요인인 자기비난의 관련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하지만 여전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인정받는다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혜(2012)의 연구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 중 과민성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이에 가장 많은 설명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원희와 안창일(2005)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ewitt & Flett, 1991; Lutwak & Ferrari, 1996)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

것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담장면에서 역기능적인 특성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상담개입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직접적인 경로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의 타인에 대한 강한 민감성은 그 내부의 취약성과 대립하는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비취지기를 원할 때 오히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에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수치심의 감정과 자기비난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권희영, 홍혜영, 2010; 한혜림, 2004; Cooper & Ronningstam, 1992; Kohut, 1979)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기대나 기준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전체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 자기비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곽진영, 하은혜, 2010; 김은혜, 201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윤성민, 신희천, 2007; 이원희, 안창일,

2005; 한혜림, 2004; Kohut, 1977; Morrison, 1989; Mullins & Kopelman 1988; Nathanson,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도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적용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관련해서 정서적 요인인 수치심과 인지적 요인인 자기비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요인을 이해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와 완벽주의 사이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자기비난을 거쳐서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왔지만, 수치심을 통해 이중매개 되었을 때 더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선은, 2011; 이형순, 2012; Dunkley & Blankstein, 2000; Zuroff, Koestner, & Powers,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 보다 정서적 취약 변인인 수치심의 경로를 거쳐 갈 때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내현적 자기에의 성격구조가 정서적 취약성인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할 때 자신의 전체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인지적으로는 자기 전체에 대한 자기비난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좌절되었을 때 먼저 정서적으로는 수치심을 느끼고 이후에 인지적으로는 자기비난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수치심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이항순, 2012; 한혜림, 2004; Kohut, 1977)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특성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신념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측면인 수치심이 선행되고 인지적인 측면인 자기비난이 뒤따라 일어나는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쉽게 감정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강선희, 정남운, 2002; 객진영, 하은혜, 2010; McWilliams, 1994; Morrison, 1989), 정서적 측면인 수치심이 선행되고, 이후에 인지적 측면인 자기비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수치심에 선행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는 주장(김정미, 2009; 권희영, 홍혜영, 2010; 정형수, 2008)도 있으므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인지적 측면인 자기비난이 선행되고, 정서적인 측면인 수치심이 일어나는 이중매개모형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향성이나 집단주의적인 문화 성향으로 인해 개인의 상호 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겸손을 사회적인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보다

두드러지는 특성일 수 있고(김은혜, 2012), 이 두 변인 모두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 특성(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Rathvon & Holmstrom, 1996)과 연관되어 있어 실제 상담 장면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취약한 성격구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수치심과 자기비난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이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에 선행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심리적 상담의 문제에 있어서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과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이르게 하는 경로에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가지는 내담자의 상담과정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에 초점을 둔 개입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 성향의 발현 시기가 초기 성인이라는 점(김은혜, 2012 제인용)을 근거로 하여 대학생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피험자의 평균 연령이 만 22세를 전후

하여 분포하고 있고, 이들이 임상 집단이 아니라 비교적 생활을 잘 기능하고 있는 건강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의 연령을 다양화 하거나, 실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반응태도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억압이나 부인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Freud, 1953; Kernberg, 1975),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취약성을 지니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여 자기보고식 검사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 관찰법, 사회측정법, 실험 등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곽진영, 하은혜 (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선은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2). 공적 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6(1), 63-79.
- 김정미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05-225.
- 김현정, 손정락 (200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83-205.
- 남기숙 (2009).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숙 (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7.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항순 (201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3(2), 199-216.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형수 (2008). 수치심을 지각하는 정도, 비난의 방향 및 대처방식과 우울과의 관계. *인간이해*, 29, 1-18.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목록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과학회*, 17(3), 133-153.
- 최중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coulides G. A., Schumacker R. E., editor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269-296. Psychology press.
- Barrow, A. (2007). *Shame, self-criticism and self-compassion in eating disorders*. University of Leicester.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M. B. Ri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pp.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kley, D. M., Blankstein, K. R., Masheb, R. M., & Grilo, C. M. (2006). Personal standards and evaluative concerns dimensions of "clinical" perfectionism: a reply to Shafran et al. (2002, 2003) and Hewitt et al. (2003).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63-84.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L.,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utwak, N., & Ferrari, J. R. (1996). Moral affect and cognitive processes: Differentiating shame from guilt among men and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891-896.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2002).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09-916.
- Lutwak, P., Sabbe, B., Blatt, S. J., Meganck, S., Jansen, B., De Grave, C., Maes, F., & Corveleyn, J. (2007).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Relationship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severity of depression, and clinical presentation. *Depression and Anxiety*, 24, 586-596.
- McWilliams, N. (2008). 정신분석적 진단 - 성격구조의 이해 -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정남운, 이기련 공역). 서울: 학지사(원저는 1994년 발간).
- Morrison, A. P. (1989). *Shame: The underside of narcissism Hillsdale, NY: The Analytic Press*.
- Mullins, I. S., & Kopelman, R. F.,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Nathanson, D. L. (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achel, H., & Deborah, L. (2010). The role of shame and self-critical thinking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current threat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7*(1), 13-24.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Santor, D. A., & Yazbek, A. A. (2006). Soliciting unfavourable social comparison: Effect of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3), 545-556.
- Sarah, C., & Siân, C. (2009). Perfectionism, self-criticism and maternal criticism: A study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321-32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22*, 564-571.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hompson, R., & Zuroff, D. C. (2004). The levels of self-criticism scale: comparative self-criticism and internalized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419-430.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16*(7-8), 335-35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Sage.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urmser, L. (1981). *The mask of sham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Zuroff, D. C., Koestner, R., & Powers, T. A. (1994). Self-criticism at age 12: A longitudinal study of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367-385.

원 고 접 수 일 : 2014. 08.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0. 30

게 재 결 정 일 : 2014. 11. 10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Self-criticism i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oon Sun Lee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self-criticism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 sample of 450 (160 men, 290 women) undergraduate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was surveyed. Questionnaires including Covert Narcissism Scale (CN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Internalized Shame Scale (ISS), and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 were implemented by participant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Particularly, bootstrapping were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hame and self-criticism were found. Additionally, covert narcissism influence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rectly as well as effects indirectly through shame and self-criticism. The results indicated that shame and self-criticism would play mediation roles i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i.e., partial double mediation effects of shame and self-criticism).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hame, Self-criticism, undergraduates.